Deloitte.

AI-generated Image




딜로이트의 AI Tokenomics 서비스

# AI 토크노믹스

## 토큰 기반의 TCO 분석과 AI 비용 최적화 전략

**2026년 11월**
Deloitte Insights

# Leader's Message



**박경순 상무**
Forensic & Resilience 본부
경영자문부문 | 한국 딜로이트 그룹

kyungspark@deloitte.com

## AI 경쟁력은 이제 '얼마나 쓰는가'보다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AI 확산과 함께 기업의 AI 지출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상당수 기업이 예산 초과를 겪고 있지만, AI 투자가 측정 가능한 가치를 창출한다고 답한 재무 리더는 절반에 못 미칩니다.

AI 비용은 이제 경영진이 예측·통제하고 투자 성과를 검증해야 할 핵심 경영 과제입니다.
본 리포트는 AI 비용 관리의 출발점으로 '토큰'에 주목합니다. 토큰은 AI 사용량을 측정하고 비용을 분석하는 공통 기준입니다.

딜로이트 분석 결과, 세 가지 인프라 방식(자체 인프라,AI 전용 클라우드, 외부 서비스)의 비용 우위는 AI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인프라는 현재 단가보다 향후 사용량을 고려해 선택하고, AI 사용 방식의 최적화와 예산·사용 한도·승인 체계를 통해 비용을 지속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본 리포트는 AI 비용 관리와 투자 성과 검증을 위한 판단 기준과 경영진의 실행 과제, 이를 지원하는 딜로이트의 AI 비용 관리 서비스를 제시합니다.
AI 투자의 경제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는 경영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I 토크노믹스 서비스 소개/ AI 토크노믹스 리포트

# Table of Contents


Chapter 1. AI 비용 관리의 새로운 기준

Chapter 2. AI 비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Chapter 3. AI 인프라별 비용 구조와 경제성

Chapter 4. AI 비용 최적화 방안

Chapter 5. 딜로이트의 AI 비용 관리 서비스


© 2026.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

# AI 지출은 커지는데, 기존 방식으로는 사용량의 예측도 성과 확인도 어렵다.

AI 투자 규모와 비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AI 비용 관리는 CFO와 이사회가 투자 타당성·비용 통제·성과를 검증해야 하는 과제로 부상

## AI 지출 급증

**+27%**

2026년 글로벌 클라우드 지출 증가 전망(전년 대비)

**130배**

구글 월간 토큰 처리량 1년간 증가 (2025.10, 1,300조 개)

**93%**

AI 예산 대비 지출 초과를 경험한 응답 기업

## 비용 예측의 불확실성 증가

### 토큰 수요·비용의 변동성 유발 요인

**비선형 수요** → 복잡한 추론 모델은 단순 응답보다 많은 토큰 소비

**사용량 변동** → 시험사용·워크로드 설계·프롬프트 방식에 따라 변동

**가격 변동** → 모델·인프라 성능에 따라 처리 비용과 이용단가 상이

Ex) 클라우드 → 자체 인프라 비용이 26~50%인 구간부터 150% 초과 구간까지 다양

## 투자 성과 검증 불투명

**45%** (경영진 548명 중)

기본적인 AI 자동화 구축에 투자 후 ROI 확인까지 최대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

**60%**

고도화된 AI 자동화는 3년 보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

**28%**

AI 투자가 측정 가능한 가치를 창출한다고 답한 재무 리더는 절반 이하

© 2026.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

# 토큰이라는 공통의 단위로 AI의 사용량, 비용,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전력 사용량을 kWh로 측정하듯, 토큰*은 AI 사용량을 측정하고, 비용으로 환산하는 단위이자, AI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

## 현재 관리 기준의 한계

- 비용 예측 한계: AI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향후 비용 규모 산정에 어려움
- 성과 검증의 한계: 모델·서비스별 효율과 투입 비용 대비 실제 업무 성과를 비교·평가하기 어려움

좌석 · 라이선스
크레딧
API 토큰**
쿼리수
저장량 · GPU 시간

**토큰**
공통 측정 단위

- 같은 사용자도 설계·추론 복잡도·인프라에 따라 비용이 달라짐
- 공급업체마다 청구 단위가 상이 (좌석·크레딧·토큰·쿼리·저장량) → 직접 합산 불가
- 청구액만으로는 비용 증가 원인과 책임 조직을 알 수 없음

## 사용량을 토큰 기준으로 환산

- 같은 토큰 단위로 매출·마진·생산성 효과와 비교 → 업무 단위 ROI 산정 가능
- 기술 선택(GPU·호스팅·모델)이 재무 수치로 환산

**사용량** × **단가** = **비용** (AI 지출 (조직·업무별))

- 토큰 수 (입력 + 출력)
- 토큰 당 처리 비용
- AI 지출 (조직·업무별)

- 서로 다른 사용기록과 청구단위를 일관된 비용기준으로 표준화 → 조직과 업무별로 비용을 배부
- 분산된 AI 비용을 기존 예산·회계체계와 연결하여 조직과 업무별 책임비용으로 전환

## 경영진이 직면한 과제 해소

**AI서비스의 가시화 및 비용 거버넌스 확보**

| | |
|---|---|
| 가시성 확보 | • 조직·업무별 AI 비용을 파악하고 지출 원인 분석 |
| 통제 강화· 비용 누수 차단 | • 예산 초과를 사전 관리하고 불필요한 AI 지출 최소화 |
| 관리 책임 명확화 | • AI 비용 관리의 책임 주체와 승인·통제 절차 정립 |

*토큰(Token)은 AI 모델이 텍스트·이미지·오디오 같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최소 단위; ** API 토큰은 기업이 ChatGPT 같은 완성된 앱(SaaS)을 쓰지 않고 GPT·Claude·Gemini 같은 모델을 자사 시스템에 직접 연결해, API로 호출할 때 처리되는 토큰 의 수

© 2026.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

# SaaS·API·AI 팩토리: 조달 방식이 비용의 가시성과 통제 범위를 결정한다.

## AI 조달 방식 선택 시 편의성·비용 가시성·통제력·경제성을 고려해야 하며, 예산과 관리 권한에 따라 비용을 실시간 점검하는 통제 체계 구축 필요

- 실제 AI 사용량과 비용을 파악하고 세부적으로 통제하는 데 한계
- **토큰 기반 비용 추적과 최적화가 용이하나, 사용량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산 통제 필요**
- 초기 투자비가 크지만, AI 사용량이 많고 설비 활용률이 높을수록 비용 절감과 운영 통제에 유리

| 유형 | SaaS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독) | API (모델 직접 호출, 종량제) | AI 팩토리 (전용 인프라·SW·서비스) |
|---|---|---|---|
| 비용 산정 기준 | • 월·연간 구독료 또는 사용자당 라이선스 요금 | • 입력·출력 토큰 사용량과 모델별 적용 단가를 기준으로 과금 | • GPU 서버·네트워크 등 초기 인프라 투자비(CapEx)<br>• 전력·유지보수·소프트웨어 등 운영비(OpEx) |
| 비용 가시성 | • AI 사용량·토큰 처리 비용이 구독료에 포함<br>→ 실제 사용 비용 산정 불가 | • 토큰 사용량과 적용 단가를 확인할 수 있어 모델·업무별 비용 분석 가능 | • 자체 측정 체계를 통해 토큰 처리량과 인프라 운영비 파악<br>→ 토큰당 처리 비용 산정 가능 |
| 주요 강점 | • 별도 인프라 구축 없이 신속한 도입이 가능<br>• 운영·유지관리 간편 | • 실제 사용량에 따른 지출 추적이 용이<br>• 모델 선택·호출 방식 조정으로 비용 최적화 가능 | • 대규모 처리량과 높은 설비 활용률 확보 시 단위 비용 절감 가능하며, 데이터·인프라 통제력 강화 |
| 한계 | • AI 모델 선택과 토큰 사용량·처리 비용에 대한 통제력 제한 | • 프롬프트 길이·추론 복잡도·호출 빈도에 따라 비용이 변동<br>• 제공업체의 인프라 직접 통제 불가 | • 초기 투자 부담이 크고, 설비 활용률에 따라 경제성이 달라지며 전문적인 구축·운영 역량 필요 |
| 적합한 AI 워크로드 | • 문서 작성·요약·검색 등 범용 업무 생산성 향상 | • 초기 실증(PoC)·파일럿, 사용량 변동이 큰 업무<br>• AI 에이전트·검색증강생성(RAG)* | • 대규모·상시 운영 업무, 사용량 예측이 가능한 AI 서비스<br>• 빠른 응답이 중요한 실시간 AI 처리 |

* 검색증강생성(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은 AI가 답변을 만들기 전에 기업 내부 문서나 외부 자료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그 내용을 참고해 답변을 생성하는 기술

© 2026.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

# 같은 모델이라도 인프라·호스팅·모델 선택에 따라 토큰 비용은 크게 달라진다.

조달 방식이 정하는 것은 청구 형태일 뿐, 비용 증가의 원인은 인프라·호스팅·모델별 토큰 비용 분해를 통해서만 파악·통제 가능

## ① 인프라: 무엇으로

**컴퓨트(GPU)**
- 가장 큰 비용 항목, 짧아지는 세대 교체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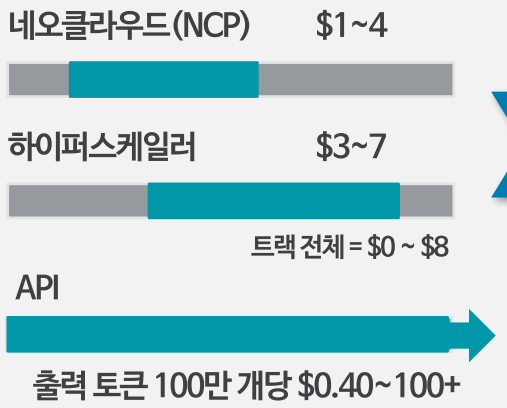
**스토리지·네트워킹**
- 데이터 접근·통신 지연 → GPU 유휴 → 토큰당 비용 상승

**전력·냉각·시설**
- 차세대 GPU 랙 1대 250~300kW (일반 서버 10~15kW)

## ② 호스팅: 어디서

인프라(GPU)를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토큰 단가 상이

- GPU 1대 · 시간당 이용 단가




## ③ 모델: 무엇을

어떤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 토큰당 비용 구조가 달라짐

**개방형 모델**
- Llama, Mistral 등 · 모델을 내려받아 직접 운영
- 장점: 모델 사용료가 없고, 자사 데이터로 파인튜닝하며 데이터 주권도 확보
- 단점: GPU 확보·배포·모니터링 등 인프라·운영 비용을 직접 부담

**폐쇄형 모델**
- Claude, Gemini, GPT, Grok 등 · API·앱으로만 이용
- 장점: 구축 없이 최신 고성능 모델을 즉시 사용
- 단점: 토큰당 비용이 높고 지출 예측이 어려우며, 맞춤화 제약과 벤더 종속 위험

## 결과: 토큰당 비용

동일 사용량에서도 API 처리 조건에 따른 비용 차이 (예시)

**8.8배**

- 조건 A: 우선 처리·긴 문맥·지역 지정
- 조건 B: 일괄 처리·짧은 문맥·지역 미지정

- 모델·입출력·처리 등급·입력 길이·캐시·지역·도구 사용료가 모두 단가에 달라짐

© 2026.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

# 사용량이 커지면 비용 우위는 API에서 AI 팩토리로 역전된다.

**파일럿에서 대규모 추론으로 확대되는 3년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1년차는 API, 2년차부터는 AI 팩토리가 최저 비용**

**1년차 파일럿 · 100억 토큰** → **2년차 PoC · 3,000억 토큰** → **3년차 대규모 추론 · 1조 토큰**

- 종량제 API·NCP는 단순·소량 업무에, 자체 AI 팩토리는 복잡·대량 업무를 장기간 운영할 때 비용 효율적
- 2년차부터 AI 사용량과 GPU 활용률이 높아지면서, AI 팩토리의 토큰당 처리 비용이 API 방식보다 낮아짐




## 3년 누적 TCO

API 누적 TCO가 AI 팩토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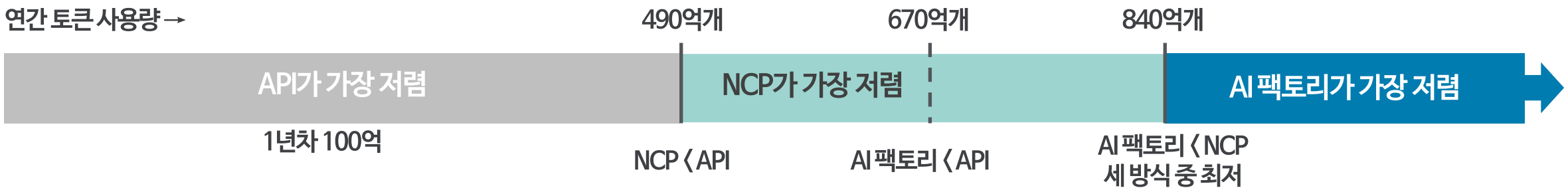
**2.1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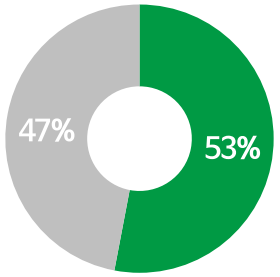
| | |
|---|---|
| API | $4.60M |
| NCP | $3.86M |
| AI 팩토리 | $2.18M |

© 2026.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

# 변곡점은 연간 사용량 기준 토큰 670억개 , 840억개를 넘으면 AI 팩토리가 가장 저렴하다.

**API는 사용량에 비례해 총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NCP·AI 팩토리는 사용량 확대에 따라 토큰당 비용이 하락하므로, 현재 단가보다 향후 사용량을 고려한 인프라 선택 필요**




| 왜 역전되는가 | 무엇이 비용을 구성하는가 |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
|---|---|---|
| • API: 사용량에 비례해 비용 증가 → 토큰당 비용 거의 불변<br>• AI 팩토리·NCP: 고정 비용을 더 많은 토큰에 분산 → 토큰당 비용 급락<br>• 가동률을 높일수록 자체 운영의 단가 우위 확대 | <br>• AI 팩토리 연간 TCO 구성 (100억 토큰 기준)<br>• 컴퓨트(GPU 서버 등)가 53%로 가장 큰 비중<br>• GPU만으로 예산을 잡으면 비용의 절반 가까이 과소 산정 | • 토큰 단가는 하락 (백만 토큰당 $0.04 → 2030년경 약 $0.01 전망)<br>• 제본스의 역설: 에이전트 확산으로 수요가 효율 개선을 앞질러 총지출은 증가<br>• GPU 세대교체 가속 → 고정 가정이 아닌 전환 유연성 확보 필요 |

© 2026.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

# 과잉 모델과 비효율적 추론을 줄이는 것이 비용 절감을 위한 우선순위이다.

**토큰 단가가 내려가도 사용량이 늘면 총지출은 커지므로, 업무에 필요한 만큼의 모델·인프라·추론만 쓰도록 사용 방식을 설계**

## 낭비는 어디서 생기는가

**과대 모델·인프라**
- 업무 수준보다 큰 프론티어 모델과 고성능 GPU 사용

**과잉 추론**
- 단순 로직으로 충분한 작업에 긴 추론을 돌리는 에이전트

**중복·과다 입력**
- 반복 질의의 재처리, 불필요하게 긴 맥락 입력

## 다섯 가지 최적화 방안

**적정 모델·인프라**
소형·파인튜닝 모델 활용, 분류·이상탐지는 중급 GPU·CPU, 고성능 모델은 필요한 업무에만(멀티모델)

**간결한 설계**
의사결정 트리·규칙 기반 엔진, 컨텍스트 윈도우 상한

**알고리즘 기법**
조기 종료, 프롬프트 절단, 압축 트랜스포머

**모델 최적화**
양자화, 프루닝, 지식 증류, 전이학습

**추론 설계**
RAG,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응답 캐싱, 배치 처리, 결정론적·확률적 모델 병행

## 기대 효과

- 토큰·연산 자원 사용량 감소
- 업무 성능·정확도는 유지
- 특정 벤더 의존도 완화
- 예측 가능한 지출 구조

**AI 운영 효율화와 비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운영 체계 구축 필요**

© 2026.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

# AI 사용량·비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서별 비용 배분·한도 설정으로 지출을 통제해야 한다.

## 모델과 인프라 최적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업부별로 분산 발생하는 AI 비용을 측정·귀속·통제하는 기업만이 AI 활용의 지속적 확대 가능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

| 측정 | 배분 | 통제 | 개선 |
|---|---|---|---|

### 통합 모니터링

- GPU 사용시간·스토리지·데이터 반출·토큰 사용량을 한 곳에서 실시간 파악

**85%**

- GPU 가동률 85%를 목표치이자 유휴 자원 점검 기준으로 설정
- 가동률이 기준에 못 미치면 자원 재배분·축소로 토큰당 비용 절감
-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여러 부서·업무의 GPU 사용을 자동 조율해 유휴 시간 최소화

### 책임 귀속·내부 청구

- 조직·업무·프로젝트 태그로 사업부별 비용 배분(chargeback)
  → 그림자 AI 비용 누적 차단

[예시]

| | |
|---|---|
| 직접 귀속 | 700만 원 |
| 공통비 배부 | 200만 원 |
| 미귀속 별도관리 | 100만 원 |
| 관리대상 비용 | 1,000만 원 |

### 예산·사용 한도

- 예산 알림, 컨텍스트 윈도우 제한, API 사용량 상한으로 과도한 사용 방지

[예시]

| | |
|---|---|
| 80% 소진 | • 알림 |
| 초과전망 | • 조정안 승인 |
| 한도 도달 | • 제한 또는 승인된 예외 |

### 재무·기술·사업 공동 관리

- 예상 토큰 수요와 ROI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승인

**AI 비용 효율화를 위한 4대 관리조치**

1. 미사용·저활용 유료 계정 → 재배치·수량 재산정
2. 중복 AI 서비스 → 계약 통합
3. 수요와 맞지 않는 약정 → 차기 약정량 재산정
4. 비정상 사용량 급증 → 원인 분석 후 제한·예외 승인

© 2026.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

# 토큰 단위의 비용 데이터와 이를 통제하는 관리체계가 먼저 필요하다.

**관리체계 없는 AI 지출은 SaaS 갱신 속 은폐, API 청구 급증, 장기 약정 고착의 위험이 있어, 투자 성과와 모델·인프라 특성에 대한 통합적 이해 필요**

| 의사결정 과제 | 판단 기준 | 딜로이트 지원 |
|---|---|---|
| **비용 부담구조**<br>• 벤더 가격, 라이센서 등 어떤 계약 조건과 약정 범위를 받아들일지 결정 | 벤더 가격 정책·라이선스 변경이 우리 회사 비용에 어떤 방식으로 전가되는가? | **계약·청구 조건 데이터 검토**<br>계약 조건과 가격 반영 구조 점검, 전환 유연성을 제한하는 약정 점검 |
| **조달 방식 선택**<br>• 사용 규모에 따라 SaaS·API ·AI 팩토리 결정 | 사용 규모가 조달 방식을 바꿀 변곡점 (연 670억·840억 토큰)에 다가가고 있는가? | **업무별 토큰 사용량 추이 모니터링**<br>업무별 비용 분석 기반 조달 방식 경제성 검토 지원 |
| **비용 증가 억제**<br>• 조직별 예산·한도를 얼마로 정하고,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할지 결정 | 인프라·워크로드 설계·사용량이 함께 관리되고 있는가? | **예산·한도·승인 체계 정립**<br>조직별 한도와 초과 시 동작(경고·예외 승인·차단)을 정책으로 운영 |
| **성과 평가**<br>• 어떤 AI 업무를 확대하고 어떤 업무를 멈출지 결정 | 인건비 절감액이 토큰 처리 비용을 실제로 넘어서는가? | **업무 단위 비용·성과 연계**<br>AI 활용 효과 분석 및 확대·축소 판단 지원 |

© 2026.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

# 데이터 통합에서 조치 실행까지, 4 단계로 AI 비용 관리를 끊김 없이 연결한다.

현재 AI 서비스의 청구·사용 내역부터, 비용 확인·승인·적용과 결과 검증까지 이어지는 '가시화 → 최적화 → 통제 → 정착'의 4 대 관리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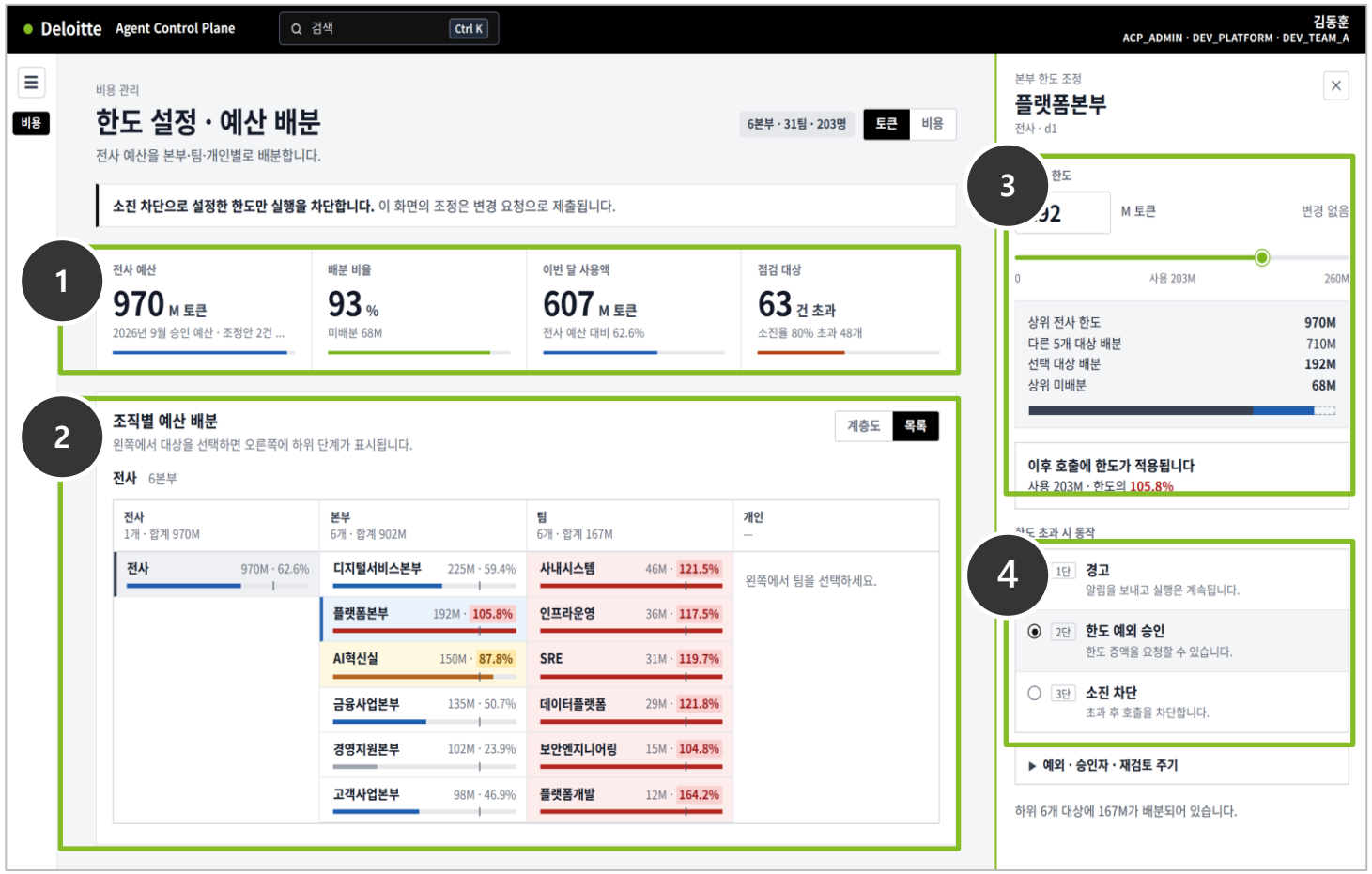



© 2026.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

# AI Tokenomics 서비스는 비용 현황 파악부터 예산.한도 관리 및 초과 대응까지 지원한다.

## 전사 예산을 본부 → 팀 → 개인으로 배분하고, 한도를 넘었을 때 무엇이 일어날지를 정책으로 설정

본 사례는 기능 설명 예시




### ① 비용 현황 요약 — M1

전사 예산 970M 토큰 중 93% 배분, 이번 달 607M 사용
토큰·비용 단위 전환, 점검 대상 63건 자동 표시

### ② 조직별 예산 배분 — M2

전사 → 본부 → 팀 → 개인 순으로 한도 배분
소진율 80% 기준선, 초과 조직은 색상으로 구분

### ③ 한도 조정 — M2

상위 미배분·사용 대비 소진율을 보며 한도 조정
조정 내용은 변경 요청으로 제출되어 승인 후 적용

### ④ 한도 초과 시 동작 — M2

1단 경고 · 2단 한도 예외 승인 · 3단 소진 차단
조직별 한도와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배정값 조정

© 2026.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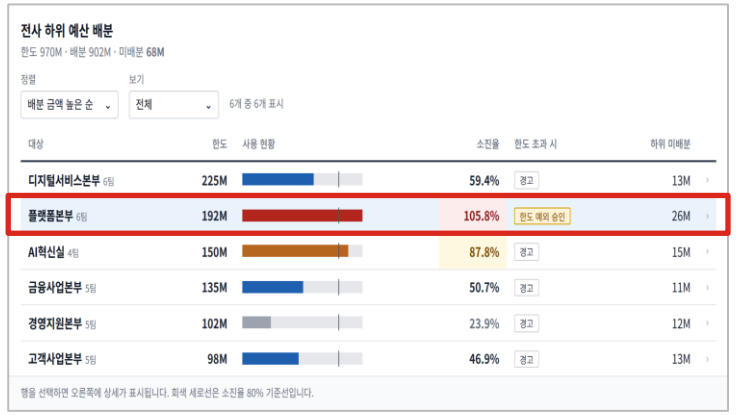
# 한도 초과는 승인으로, 남는 예산은 회수로 예산이 실제 사용에 맞춰 움직인다.

## 플랫폼본부 사례: 한도 초과 감지부터 증액 승인, 남는 예산 회수와 재배분까지 한 화면 흐름에서 처리

본 사례는 기능 설명 예시

### 초과 감지

- 플랫폼본부 소진율 105.8% – 한도 192M을 넘자 한도 초과 현황 확인 및 예외 승인 요청 검토
- 조직별 소진율에 따른 경고,예외 승인,사용 제한 기준 설정




### 예외 승인

- 하반기 코드 에이전트 확대 사유로 192M → 252M 증액 요청 → 승인·반려




### 회수·재배분

- 3개월 연속 소진율 21% → 한도 회수
- 회수한 예산은 우선 업무에 재배분




### 이 흐름으로 경영진이 얻는 것

✓ 예산 초과를 사후 정산이 아닌 사전 승인으로

✓ 모든 증액·회수에 사유와 승인 이력이 남음

✓ 총예산 증액 없이, 남는 예산을 필요한 업무로 배분

© 2026.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

# 필요한 기능부터 시범 적용하고, 검증된 범위부터 전사로 확대한다.

우선 관리할 AI 서비스·업무·조직을 함께 정하고, 집계·예산·권한 정책을 검증한 뒤 적용 범위를 확대

## 01 진단

### 주요 활동

- 계약·데이터·책임
- 현황 확인

### 고객 참여

- 자료 제공
- 담당자 인터뷰

**관리대상·우선과제 합의**

## 02 설계

### 주요 활동

- 원장·배부·통제
- 운영 기준 정의

### 고객 참여

- 배부·예산·성과
- 기준 협의

**기준서·적용범위 승인**

## 03 시범 적용

### 주요 활동

- 선택 기능 설정
- 집계·통제 검증

### 고객 참여

- 정책 실행
- 결과 검증

**집계·정책 적용 결과 검증**

## 04 운영 정착·확장

### 주요 활동

- 운영 인수
- 이행과제 정리

### 고객 참여

- 운영 책임자
- 지정·인수

**담당자·일정·확대순서 확정**

© 2026.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

## 딜로이트 AI Tokenomics 서비스 전문팀

AI 사용이 전사로 확산되면서, AI 비용은 더 이상 IT 부서의 운영비로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AI Tokenomics 서비스는 흩어진 사용·청구 데이터를 조직과 업무 기준으로 연결해 비용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예산과 사용 권한을 정책으로 관리합니다.
실행 결과는 다시 다음 관리 기준에 반영해, AI 비용이 재무·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지원합니다.


**이창성** 상무
Forensic & Resilience 본부
경영자문부문 | 한국 딜로이트 그룹
changsulee@deloitte.com

**박경순** 상무
Forensic & Resilience 본부
경영자문부문 | 한국 딜로이트 그룹
kyungspark@deloitte.com



**Deloitte Insights**

세일즈&마케팅
**권지원** 대표
jekwon@deloitte.com

성장전략부문
**서정욱** 부대표
juseo@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연구원
**배순한** Director
soobae@deloitte.com

연구원
**이소윤** Consultant
soyunlee@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 채널 & 앱

## 전 세계 경제·산업·경영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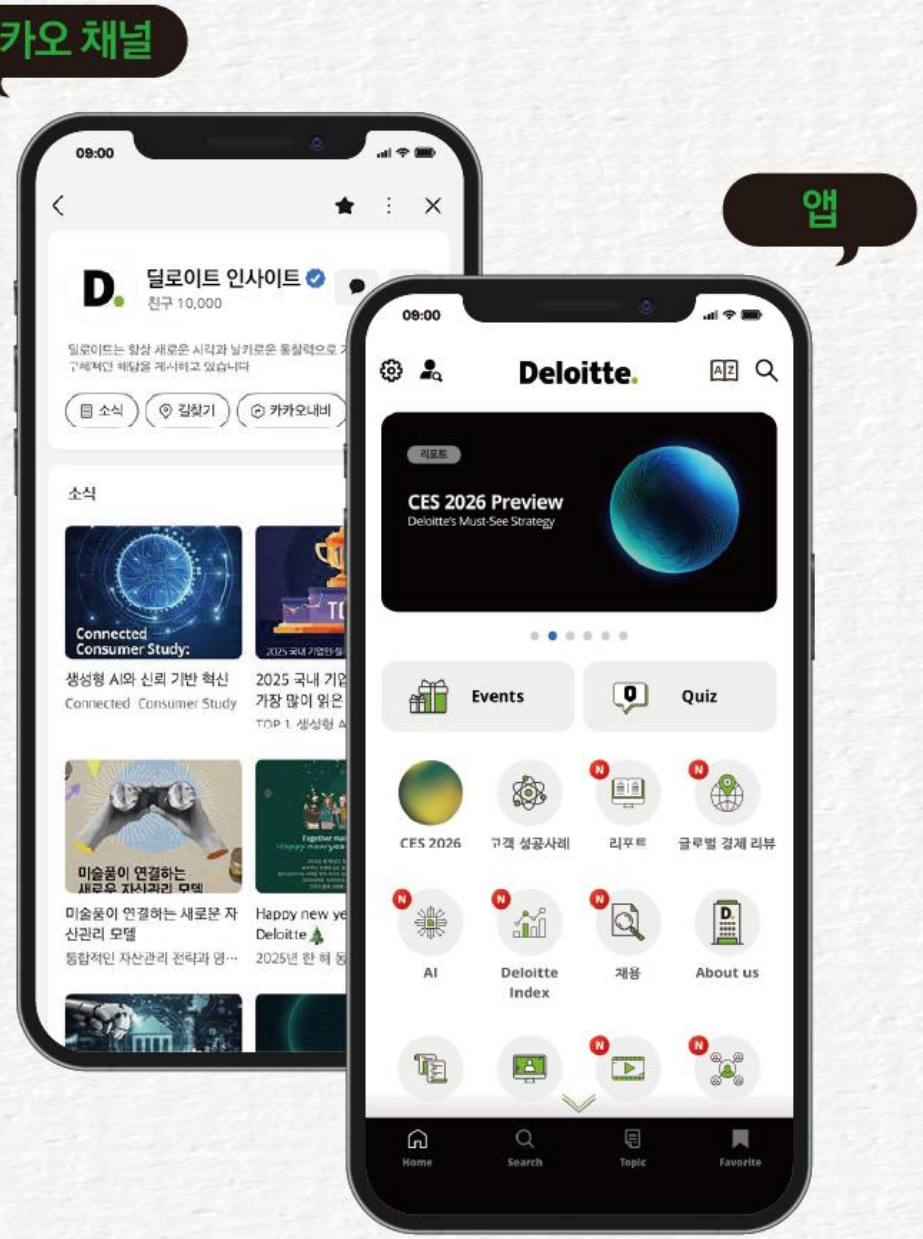
- AI 시대의 전략과 리스크, 산업별 핵심 이슈를 다룬 **분석 리포트**
- 소비심리지수·자동차 구매의향 등 실물경제의 향방을 보여주는 **Deloitte Index**
- 딜로이트 전문가의 인사이트와 글로벌 행사의 현장을 담은 **영상 콘텐츠**
-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검증된 실행 인사이트를 담은 **고객 성공 사례**

카카오채널

앱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 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 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 2026.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